

산업부, 역대 최대 집행률(80.7%) 달성

- '24년 상반기 8.6조 원 집행으로 당초 목표치인 8.5조 원에서 0.1조 원 초과 달성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7.10.(수) 오전 김대자 기획조정실장(직무대리)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「제3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산업부 신속집행 실적 결과와 하반기 집행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.

산업부는 지난 1월 '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80%(총 10.6조 원 중 8.5조 원)로 설정한 바 있다. 이는 '24년 중앙부처(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기관 대상)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였으며, 그간 산업부가 추진해온 집행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이다.

*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 : ('20년) 62% → ('21년) 68% → ('22년) 73.7% → ('23년) 78.9%

상반기 신속집행실적 점검 결과(6.30일 기준), 당초 목표치 8.5조 원(총 10.6조 원 중 80%)을 0.1조 원 초과 달성한 8.6조 원(80.7%)을 집행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. 이는 전년 동기('23년 상반기 7.6조 원) 대비 5.2%p(1.0조 원)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반기별 실적 중 최고치(기준 최고 : '22년 8.2조 원)이다.

* 그간 산업부 반기별 집행실적 : ('21년) 8.1조 원(78.9%) → ('22년) 8.2조 원(80.4%) → ('23년) 7.6조 원(75.5%)

주요 집행 분야별로 보면,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, 저소득층 전력기기 교체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7,570억 원(집행률 89.2%),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(R&D) 예산에 3.9조 원(83.0%), 기술혁신·연구장비 설치 등 기업지원을 위한 기반구축·융자·출자예산 등에 2.4조 원(85.2%)을 집행하였다.

김대자 기획조정실장(직무대리)은 “재정집행이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국민과 기업이 그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고, “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배준형 (044-203-5520)
		담당자	사무관	오태준 (044-203-5529)
			주무관	허진혁 (044-203-5518)

1. 개최 목적

- ☐ 산업부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점검 및 하반기 점검계획

2. 회의 개요

- ☐ 일시·장소 : '24.7.10(수) 10:00~11:10 / 세종청사 13동 557호

- ☐ 참석 대상

- 기획조정실장(직무대리), 기획재정담당관, 주요 사업 담당자

- ☐ 회의 안건

- 산업부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
○ 산업부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논의
○ 주요 예산집행기관별 신속집행 현황(별도 추진예정)

3.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
10:00~10:05	(5')	○ 기획조정실장 모두 발언
10:05~11:05	(60')	○ 산업부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논의
11:05~11:10	(5')	○ 마무리 발언